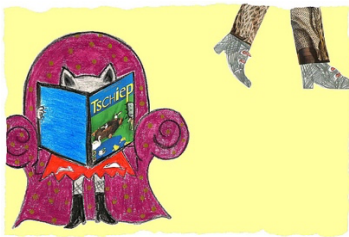


원숭이 판사

übersetzt von Min Ramm



예전에는 거의 모든 동물들이 야외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그 중 소수의 동물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한 학자의 집에 개와 고양이가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학자는 바로 구운 케이크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는 몇시간 정도 집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케이크를 벽에 있는 선반위에 안전하게 놓았습니다.



고양이는 학자가 하는 행동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학자가 집을 나가자마자 창가에 있는 고리버들 의자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의자에서 다시 탁자로, 탁자에서 제법 거리가 있는 선반위로 겁없이 뛰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이 선반은 못 하나로 겨우 벽에 매달려있었기 때문에 고양이의 공격을 견디어 내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며 케이크와 고양이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개는 햇볕 아래에서 즐며 있었고, 주인이 돌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개는 깜짝 놀라서 방으로 뛰어 들어 갔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 케이크를 잡고 있는 고양이를 보자, 개는 고양이에게 달려가서 케이크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고양이는 화를 내며 방어 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개의 코를 아주 세게 한방 때렸습니다.

개가 울부짖었습니다.



원숭이 한마리가 정원 담장을 넘어와서 창문을 호기심있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 너희 둘은 왜 싸우니?” 원숭이가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개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무썩에 쓸모없는 이 도둑 고양이가 우리 주인의 케이크를 훔치려고 했어!”

“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고양이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네가 햇빛아래서 게으름을 피고 있을때 난 힘들게 노력해서 이 케이크를 손에 넣었어!”

„무례하고 이기적인 짐승“, 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너가 혼자서 케이크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건 우리 주인님의 것이고, 나도 먹을 자격이 있어.“



„싸우지마!“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그 케이크는 너희 둘이서 함께 먹기에 충분히 크지 않니?

저기 테이블 위에 저울이 있네.

“내가 저울을 이용해서 똑같이 두조각으로 나눠 줄게.“

고양이와 개는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들뜬 그들은 원숭이가 케이크를 둘로 나누어서 양쪽 저울위에 올려 놓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한쪽 저울이 쿵 소리를 내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조각이 조금 무거운 것 같아“ 원숭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며, 부스러기를 조금 떼어내어 맛있게 입에 넣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기대감에 가득 찬 눈으로 저울이 천천히 다시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두 조각이 비슷해!” 개가 말했습니다..

.. „아니야!“ 원숭이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쪽 케이크 조각이 아직 조금 더 무거워.

나를 불공정한 판사라고 하면 안돼.“

이 말을 하며 그는 케이크를 조금 더 떼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 많이 떼어 냈기 때문에 이젠 다른 쪽 저울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울의 무게가 거의 비슷해질때까지 원숭이는 몇마디 알아 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두번째 케이크를 조금씩 조금씩 떼어 먹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원숭이가 큰 케이크를 너무 많이 떼어 먹었기 때문에 작은 케이크보다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큰 케이크가 있던 저울이 다시 올라가버렸습니다.

원숭이는 케이크를 공평하게 나누는 일을 다시 처음처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평하게 케이크를 나누는 이 일은 한쪽 저울의 케이크가 다 없어지고, 다른쪽 저울위에는 아주 작



	<p>은 조각 만이 남을때까지 반복되었습니다.</p>
	<p>그러자 원숭이는 개와 고양이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유치한 일로 너희가 싸우기 때문에 내가 심판 역할을 맡아잘하려고 노력했어?”</p> <p>너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p> <p>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직접 케이크 조각을 먹어야겠어.“</p> <p>평화로운 끝맺음을 위해 내가 혼자서 이 케이크 조각을 먹어야겠어.”</p> <p>그는 마지막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창문을 통해 나가버렸습니다.</p> <p>그렇게 사라지는 원숭이를 개와 고양이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p>
	<p>„내가 이럴 줄 알았어!“ 고양이가 화를 냈습니다.</p> <p>“그러는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어”, 개는 으르렁거리며 햇빛드는 자기 자리로 터덜터덜 걸어 갔습니다.</p> <p>„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개는 중얼거리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p>
	<p>끝</p>

